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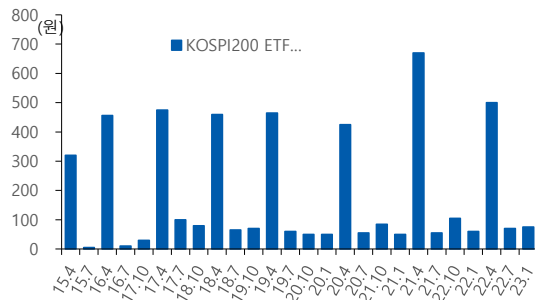


ETF 분배금, 놓치지 마세요

1. ETF 분배금, 내일까지 매수 시 수령 가능

-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 기초자산 종목의 기말 배당금 수령이 4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배경.
- 내일 4/26(수)까지 ETF를 보유할 경우(매수 또는 기관투자자는 보유종목으로 ETF 설정 시), 분배금을 수령 가능.
- ETF 분배락은 배당과 달리 확정된 배당 수령액 시초가에 반영. T+7일 수준의 단기간 현금창출과 구성종목 주가상승 등의 주가 만회 가능성도 존재.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이 가장 높은 수준. 12월 기말 배당수령이 주요 재원인 것이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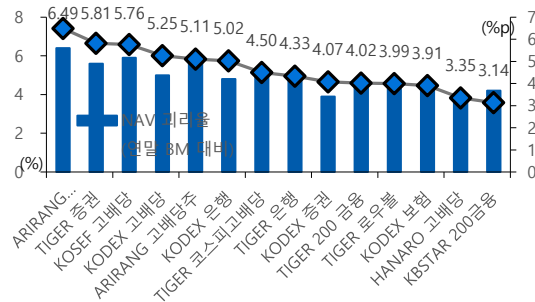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기대 분배수익률을 제고할 방법은

- 분배금 추정은 난해하지만, BM 대비 NAV 괴리 수준으로 가능하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12월말 BM 지수는 배당락을 감안해 주가 조정을 하지만, ETF NAV는 별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준이 기대 분배수익률이 높은 ETF로 추정 가능.
- 최근 결산연도 분배금 지급 추이, 저변동성 측면을 감안하면 고배당주, 은행, 보험, KOSPI200 ETF 등이 스크린.

NAV 괴리 수준, 과거 분배금 지급 추이, 구성종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ETF 접근이 합리적인 접근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ETF 분배금, 내일까지 매수 시 수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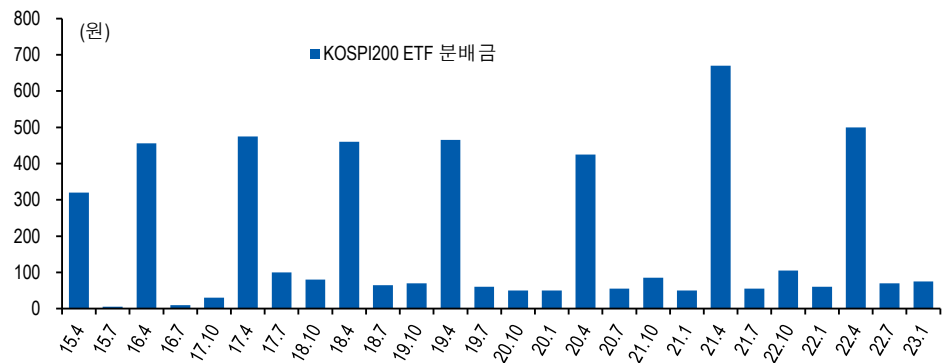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는 것처럼 ETF 투자자는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결산과 수익자의 분배가 배경인데, ETF 기초자산 종목의 배당 수령금이 주요 재원이다.

주주환원 관점에서 분기 배당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국내 종목의 배당은 아직 4분기 기말 배당에 집중되어 있다. 배당부를 위한 수급 진입도 연말에 주로 확인되는 이유다.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자산 종목의 기말 배당금 수령이 4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내일 4/26(수)까지 ETF를 보유할 경우(매수 또는 기관투자자는 보유종목으로 ETF 설정 시), 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일 T-2일 매수해야 분배금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차트1]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이 가장 높은 수준. 12월 기말 배당수령이 주요 재원인 것이 배경.



2. 주식 배당과 다른 한계와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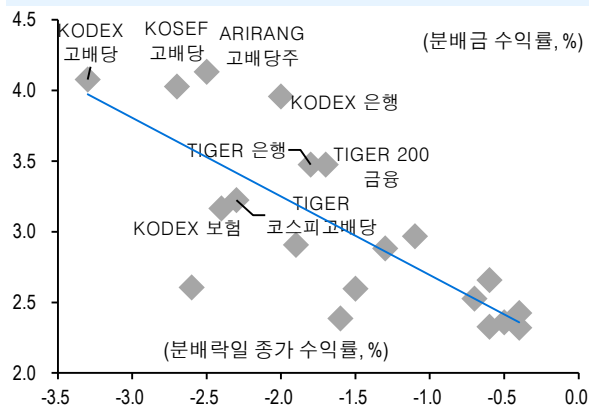
주식 배당은 배당부가 다소 성과가 있었던 편이다. 주주환원 관련 배당성향이 증가한 점과, 전년 기준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배당락이 발생한 편이다. 배당부가 유리한 점이 투자자에게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ETF의 분배금 수령의 성과는 투자 ETF의 배당금 수령액(확정된 자금)으로 시초가 하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령하는 금액만큼 주가 하락이 반영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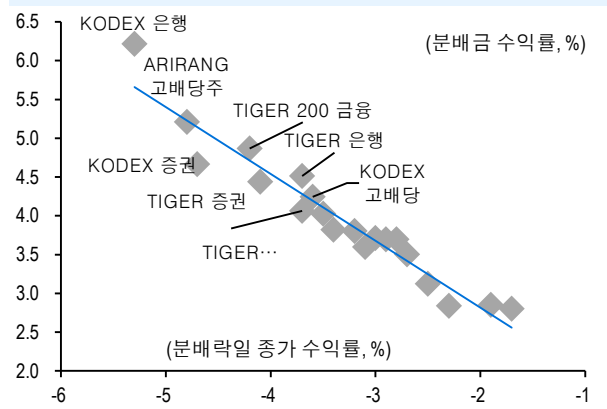
다만, 배당투자를 하는 목적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유 관점에서 현금 수령의 알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TF 분배금도 개별 종목 투자보다 현금 부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이점이 될 것이다.

이전 4월 ETF 분배락일을 보면 종목별 수익률 성과는 상이하지만, 분배수익률 대비 가격하락이 양호한 성과를 보인 ETF도 눈에 띈다. 주식 배당락은 개별 종목 수급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ETF 분배락은 구성종목의 주가상승 등으로 주가하락이 만회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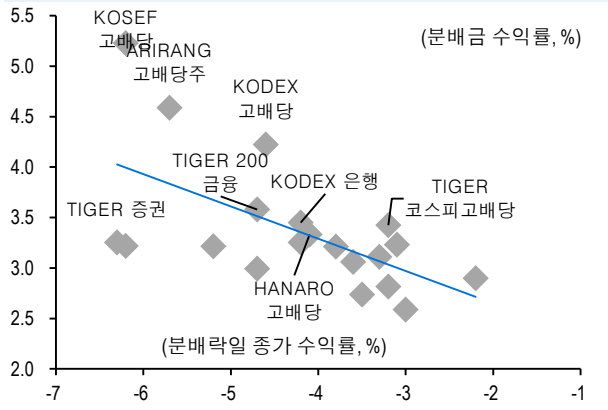
[차트2] 19.4월 분배수익률 상위 ETF의 분배락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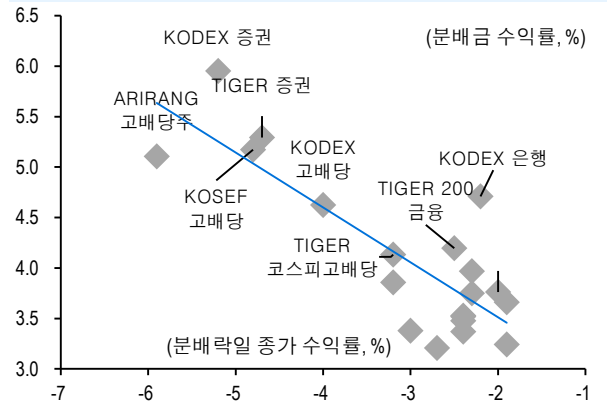
[차트3] 20.4월 성과



[차트4] 21.4월 성과



[차트5] 22.4월 성과. 분배락 외에도 구성종목의 주가도 성과에 관여.



배당 추정도 어렵지만, ETF 분배금에 대한 예상금액 추정은 더 어렵다. 개별 종목처럼 배당 컨센서스가 존재하거나, 전년 동기수준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측면도 없다. ETF의 분배금은 지급기준일 결산 후 결정되기 때문에 지수추적 관련 거래비용 발생과 운용사 및 상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금성 측면에서 주식 배당보다 유리하다. 주식배당의 경우 12월말 진입 시 주로 4월에 배당금을 수령한다. ETF는 분배금 수령은 상품별로 상이하다. 주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지급기준일 T+7일 수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유리하다.

[표1] 주식 배당과 ETF 분배금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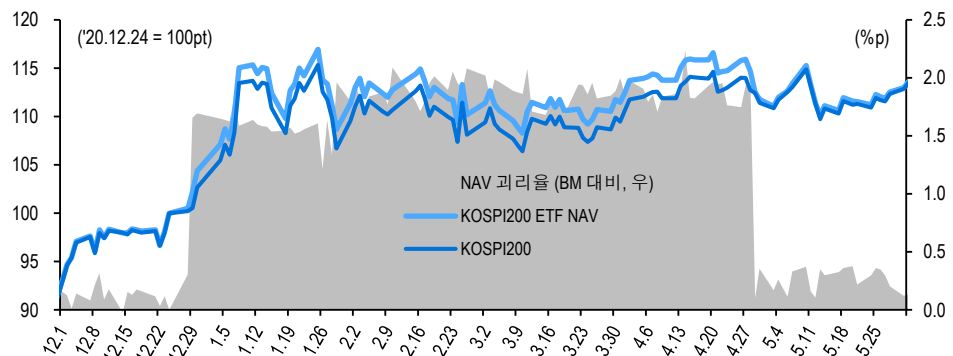
주식 배당	구분	ETF 분배금
3, 6, 9, 12월말	지급 기준일	상품별 상이. 1, 4, 7, 10월말
T-2일	배당/분배 부 매수기한	T-2일 (4/26)
T-1일	배당/분배락	T-1일 (4/27)
배당 컨센서스, 전년 동기수준, 배당성향 등으로 추정	예상 금액	추정 불가. 지급기준일 결산과 운용사 및 상품에 따라 상이
12월말 매수시 주로 4월 수령	환금성	상품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보통 T+7일

3. 기대 분배 수익률을 제고할 방법은

분배금 추정은 난해하지만, BM 대비 NAV 괴리 수준으로 가늠하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12월말 BM 지수는 배당락을 감안해 주가 조정을 하지만, ETF NAV는 별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준이 유지되고, BM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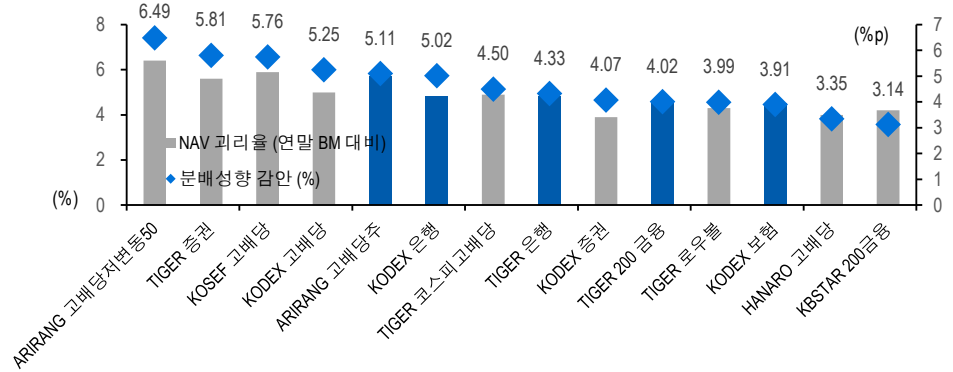
NAV와 BM과의 괴리는 4월말 분배금 지급 시점에 좁혀지게 된다. 12월 주식 배당액이 4월 ETF 금액으로 이전된다고 관점에서 보면, 결국 현 시점에서 BM과 NAV 괴리율이 높은 ETF가 기대 분배수익률인 높은 ETF로 추려볼 수 있다.

[차트6] 주식 배당락일 기초 BM은 배당락을 반영하지만, ETF NAV는 유지되는 경향. 예상 분배수익률은 ETF NAV와의 괴리로도 추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최근 결산연도 분배금 지급 성향이다. 일부 시클리컬 ETF의 경우 NAV 괴리는 주가 변동성 측면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소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목 변동성이 적은 스타일과 해당 종목들로 구성된 과소 종목 ETF도 NAV 괴리율 접근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당 ETF로는 고배당주 ETF와 은행, 보험 KOSPI200 금융 ETF가 스크린된다.

[차트7] NAV 괴리 수준, 과거 분배금 지급 추이, 구성종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ETF 접근이 합리적인 접근법.



[표2] ARIRANG 고배당주 ETF 주요 구성종목

Code	종목	비중
A316140	우리금융지주	4.97
A005490	POSCO 홀딩스	4.91
A010950	S-Oil	4.79
A024110	기업은행	4.63
A086790	하나금융지주	4.58
A055550	신한지주	4.51
A017670	SK 텔레콤	4.43
A105560	KB 금융	4.40
A175330	JB 금융지주	4.35
A005830	DB 손해보험	4.20

[표3] KODEX 은행 ETF

Code	종목	비중
A055550	신한지주	19.99
A105560	KB 금융	18.92
A086790	하나금융지주	17.89
A323410	카카오뱅크	12.53
A316140	우리금융지주	12.49
A024110	기업은행	4.44
A138930	BNK 금융지주	2.89
A175330	JB 금융지주	2.28
A139130	DGB 금융지주	1.62



[표4] TIGER 200 금융 ETF

Code	종목	비중
A105560	KB 금융	16.62
A055550	신한지주	15.04
A086790	하나금융지주	10.77
A323410	카카오뱅크	7.53
A316140	우리금융지주	7.52
A000810	삼성화재	6.58
A032830	삼성생명	5.38
A005830	DB 손해보험	3.53
A024110	기업은행	2.67
A071050	한국금융지주	2.23

[표5] KODEX 보험 ETF

Code	종목	비중
A005830	DB 손해보험	25.35
A000810	삼성화재	21.03
A032830	삼성생명	20.16
A001450	현대해상	15.34
A088350	한화생명	5.61
A003690	코리안리	4.69
A000370	한화손해보험	1.60
A082640	동양생명	0.97
A000400	롯데손해보험	0.73